

DBpia

願堂 사찰, 제천 덕주사의 마애여래입상

The Rock-carved Standing Buddha Statue at the Memorial Temple(願堂),
Deokjusa Temple in Jecheon

저자 (Authors)	임영애 Lim, Young-ae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33 , 2019.12, 483-518 (36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33 , 2019.12, 483-518 (3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3349
APA Style	임영애 (2019). 願堂 사찰, 제천 덕주사의 마애여래입상. 한국고대사탐구, 33, 483-51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5: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願堂 사찰, 제천 덕주사의 마애여래입상*

임 영 애**

- I. 머리말
- II. 관련 자료를 통해 본 월악산 德周寺
- III. 덕주사 마애불입상의 현상과 제작 시기
- IV. 월악산, 法相宗, 미륵불, 그리고 뒤의 역사
- V. 맺음말

【국문초록】

고려시대 마애불은 전국적으로 대략 100여기가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마애불 200여기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하지만, 고려시대 마애불 가운데 명문이나 관련 기록이 있어 정확한 제작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예는 극히 적다. 이곳 제천 덕주사 마애불입상도 고려 전기 크게 유행했던 대형 마애불 가운데 하나이지만, 역시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다. 덕주사 마애불의 양식을 고려하면, 11세기 전-중반 무렵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덕주사 마애불입상의 얼굴 모습은 이전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미감이다. 이러한 모습은 불상의 크기가 크다는 점과 함께 중부지역 불상의 특징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경남 고성 거류산에서 동일한 양식의 마애불이 알려지면서, 지역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유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덕주사 마애불이 위치한 월악산 인근은 영남에서 각 지역으로 이르는 길목에 있는데다가, 남한강 수로의 출발지였다. 덕주사 마애불입상과 유사한 양식의 마애불을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한편, 1158년 작성한 觀輿(1096~1158)의 묘지명을 통해 덕주사가 12세기 전반에는 법상종 사찰이며, 원당 사찰이었음도 알게 됐다. 관오는 그의 묘지명이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중앙 교단에서 활동했던 중요한 승려였음을 알려준다. 관오는 법상종 승려였다. 관오가 법상종 승려였음은 그가 출가한 승려 상지가 고려

* 본 연구는 2019학년도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원 미술사학과 부교수

최고의 법상종 사찰인 현화사의 승통이었으며, 관오 자신이 법상종 대표 사찰 가운데 하나인 법천사 주지를 지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 그가 덕주사가 願堂이라고 밝혔다는 점, 그리고 덕주사의 승려를 불러 왕을 위한 축성도량을 열었다는 점에서 당시 덕주사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덕주사 역시 법상종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덕주사 마애불의 존명은 이 시기 법상종 승려와 미륵불의 관계, 13m에 이르는 덕주사 마애불의 크기로 미뤄 볼 때 미륵불로 볼 수 있다. 덕주사는 교통이 사방으로 열린 월악산에 거대한 마애불을 새기고, 나라의 안녕을 빌었던 고려 전기 대표 호국도량 가운데 하나였다.

주제어 : 덕주사, 月岳寺, 월악산, 고성 거류산, 마애불, 觀興(1096~1158), 願堂 사찰, 미륵불, 法相宗

I. 머리말

충북 제천시 월악산의 해발 600m 지점에는 불상 높이가 13m나 되는 커다란 마애불입상이 있다(도1,2).¹⁾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명산에는 대부분 마애불이 있다. 금강산, 북한산, 월출산, 그리고 경주 남산에 이르기까지, 바윗덩어리로 이뤄진 크고 작은 산에 마애불을 새겨 봉안했다. 마애불의 숫자만 200여 기를 헤아린다. 암산이 많은 우리나라 산의 특성상, 불상 새기기가 적합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산’을 특별하게 여겼던 것도 이유일 것이다. 예부터 인간에게 ‘산’은 각별한 존재였다. 특히 고대인에게 산은 더욱 중요했다. 땅에 근원을 두지만, 하늘에 가깝게 높이 솟아 있는 산을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체라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산에서 국가 제사를 지내며, 나라의 안녕을 빌었다. 커다란 마애불을 산 정상 가까이에 새겨 그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

1) 덕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 말사이며, 덕주사 마애불입상은 1964년 9월 4일, 보물 제406호로 지정됐다.

도록 고안했던 것도 나라의 수호와 안녕이라는 불상의 역할을 고려하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도 1〉 덕주사 마애불 (© 문화재청)



〈도 2〉 (상)덕주사 전경, 드론사진 (© 문화재청)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200여 기의 마애불은 한국 불교조각 연구에서 그 어떤 예보다 소중하다. 마애불은 이동이 불가능하여, 제작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소형의 금동불이나 석불은 움직일 수 있어, 제작지 혹은 제작국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지만, 마애불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그 지역인의 마음과 지역 양식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대표 불상으로 마애불을 꼽기도 한다.

월악산에 새긴 덕주사 마애불입상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다. 수로로도, 육로로도 교통이 사방으로 열려 있는 제천의 월악산에 위치해 있어, 그곳에 올라서면 일대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덕주사 창건과 관련해 전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정확히 언제 창건했는지 알려주는 신뢰할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덕주사 마애불입상의 양식 특징과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고려 전기 무렵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158년 證智首座 觀輿(1096~1158) 묘지명에서 ‘덕주사가 願堂 사찰’이었다는 기록을 통해 덕주사의 전성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²⁾ 이 글은 각종 자료, 덕주사 마애불입상의 입지, 양식 특징 등을 고려하여 고려 전기 덕주사 마애불입상의 보다 구체적인 제작 시기, 위상, 역할, 의미 등을 살피려는 것이다.³⁾

II. 관련 자료를 통해 본 월악산 德周寺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월악산에는 덕주사가 두 곳 있다.⁴⁾ 하

2) 金龍善, 『역주 고려묘지명집성(上)』,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258쪽; 김용선 편저,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0,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3, 165~167쪽.

3) 이 글에서 고려 전기는 1170년 무신정변 이전까지를 일컫는다.

4) 덕주사가 위치한 堤川縣은 본래 고구려의 奈吐郡(혹은 大堤郡)으로 신라에 병합된 뒤 신라 제35대 景德王(재위 742-765)때 奈堤郡이 되고, 고려 초에 堤州

나는 마애불입상이 위치한 上德周寺(혹은 덕주상사)이며, 다른 하나는 下德周寺(혹은 덕주하사)이다. 하덕주사는 상덕주사와는 1.5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이름이 알려주듯 상덕주사 아래에 있었다. 처음부터 덕주사가 상덕주사와 하덕주사로 나뉘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상)덕주사만 있었는데, 이후 아래쪽에 또 다른 덕주사를 창건하면서 위를 상덕주사, 아래를 하덕주사라고 나뉘 부르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볼 것이다.

우선, 이 글에서 살펴볼 마애불입상은 상덕주사에 있다(도2). 상덕주사는 월악산의 남쪽 능선, 해발 600m 지점에 있다. 높이 15m의 거대한 암벽 남쪽 면에 13m 크기의 마애불상을 새겼으며, 그 주위로 창건 당시의 상덕주사가 있었다. 상덕주사는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지만, 지금은 발굴 후 원자리에 극락보전과 삼성각을 새롭게 복원해 사찰의 면모를 갖추었다.⁵⁾ 상덕주사 아래에 위치한 하덕주사는 덕주산성의 동문에서 약 500m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데, 이곳 역시 1951년 한국전쟁 때 소실됐으나, 1963년에는 智岩이, 1985년에는 性珠가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⁶⁾

덕주사는 ‘신라 진평왕 9년인 587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명하지 않다.⁷⁾ 덕주사는 처음에 月兄山 ‘月岳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도 전한다.⁸⁾ 월악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지만, 신라 멸망 후 경순왕의

가 되었다. 현종 9년인 1018년에는 原州에 속했다가, 조선 태종 13년 1413년에 충주에 속하면서 제천현이 되었다.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著, 『堤川郡誌』 名勝古蹟條, 堤川郡, 1974, 13~15쪽.

- 5) 2004년 7월 27일~9월 24일까지 극락전지 발굴 후 신축했다. 장준식 외 5인, 『堤川 德周寺 極樂殿址 發掘調査 報告書』, 學術研究叢書 18, 충청대학 박물관, 2006, 1쪽.
- 6) 장준식 외, 위의 책, 2006, 22쪽.
- 7)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1974, 537쪽.
- 8) 月兄山은 月岳山의 옛 이름이다. 『高麗史』 卷56, 志 卷10, 地理1, “淸風縣本高句麗沙熱伊縣.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奈隄郡領縣. 顯宗九年 來屬 後置監務. 忠肅王四年, 因縣僧淸恭爲王師, 陞知郡事. 有月嶽(新羅稱月兄山). 有風穴.”

장녀 德周公主가 불교에 귀의하고, 망국의 한을 달래면서 커다란 바위에 ‘마애불상’을 조성했고, 이후 그녀의 이름을 따 덕주사로 사찰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다.

창건 전설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순왕 9년인 935년에 마의태자가 누이 덕주공주와 함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강원도 금강산 한계산성으로 향했다. 길을 가다 월악산을 앞에 둔 계곡에 이르러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날 밤 왕자는 관음보살을 만나는 신기한 꿈을 꾸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서천에 이르는 큰 터가 있으니, 그곳에 절을 지어 석불을 세우라. 복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자리의 영봉을 골라 마애불상을 이루면 억조창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으리니...’ 잠에서 깨어난 마의태자는 이 신기한 꿈을 누이 덕주공주에게 전했는데, 놀랍게도 공주 역시 같은 꿈을 꾸었다. 다음날 서쪽 고개를 넘은 일행은 그곳에 석불입상을 세우고 복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최고봉 아래에 마애불상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마의태자는 석불입상이 세워진 미륵사에, 덕주공주는 마애불상을 조성한 월악사에 8년이라는 세월을 머물렀다.⁹⁾ 하지만 마의태자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덕주공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륵입상 옆으로 난 하늘재를 넘어 한계산성을 향해 떠났고, 오빠와 헤어진 공주는 절에 몸을 담고 나라 잃은 한을 달래며 태자의 건승을 빌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미륵리 석불입상이 마의태자의 얼굴을 닮았고, 덕주사 마애불상은 덕주공주를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각각 서로의 모습을 조성한 것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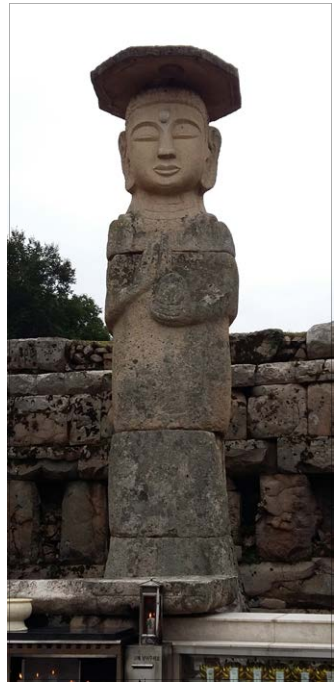
덕주사와 덕주사 마애불상과 관련해 위와 같은 이야기가 전하지만, 현

9) 나라에 어려움 일이 있을 때마다 미륵사 석불입상과 덕주사 마애불상 사이에 瑞氣가 발해서 광채가 통하고, 불상 얼굴에 핏자국이 졌으며, 이러한 경우는 한국전쟁 때도 자주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忠北北道 문화공보담당관실, 『傳說誌』, 1982, 511-512쪽.

10) 柳今烈 편저, 『淸風府邑誌史料集成』 3, 奈堤文化硏究會, 2015, 132쪽.

제 마에불상의 양식 특징을 고려하면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월악사’는 ‘덕주사’의 원래 이름이 아니며, 월악사와 덕주사는 월악산에 위치한 서로 다른 사찰이다. 덕주사 마에불입상의 형식과 양식 역시 뒤에서 더 소상히 살펴겠지만, 양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위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한편, 마의태자가 덕주사 마에불입상과 함께 조성했다는 석불입상, 즉 미륵대원 미륵입상 관련 이야기 역시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만 덕주사 마에불입상과 마찬가지로 높이가 10.6m에 달하는 커다란 불상이며, 덕주사 마에불입상과 양식적으로 같은 계보 위에 있기는 하다(도3). 신



〈도 3〉 충주 미륵대원지 석불입상, 보물 제96호 (© 임영애)

체에 굴곡이 없는 원통형의 체구, 몸에 비해 크고 정성 들어 조각한 얼굴, 둥글고 큼직한 얼굴, 좁은 이마에 커다란 백호, 가늘고 긴 눈, 큼직한 두 손과 발 등은 덕주사 마에불상과 같은 계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상은 덕주사 마에불상처럼 4등신의 비례가 아닌 긴 장신의 체구라는 점에서 덕주사 마에불상과는 차이가 있으며, 제작 시기는 미륵대원 석불입상이 덕주사 마에불입상보다 앞서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작 시기는 미륵대원 미륵입상은 10세기 무렵, 덕주사 상은 11세기 무렵 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덕주사 창건과 관련한 이야기는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적어도 마에불입상은 덕주사의 초창과 관련있다고 생각한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필자는 마애불입상과 덕주사 창건은 동시에 이뤄진 일이라고 판단한다. 덕주사 관련 문헌 및 금석문 자료는 적지 않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록은 1158년의 「證智首座觀奧墓誌銘」이다. 이 묘지명은 증지수 좌 관오의 것인데, 그가 입적한 때인 1158년에 쓰인 것이다. 묘지명의 전·중반부 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스님의 이름은 觀奧이고, 자는 虛中이며, 속성은 최씨로, 그 선조는 水州 사람이다. 衛主匡國功臣 守大師 內史令 貞肅公 土威의 玄孫이고, 守司空 左僕射 叅知政事 和順公 繼芳의 둘째 아들이다. 12세에 숙부인 玄化寺 僧統 尙之에게 투탁하여 머리를 깎고, 승통 靈絜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았으며, 乾統 8년 무자년(1108)에 佛日寺에서 계를 받았다. 天慶 3년 계사년(1113)에 崇敎寺 成福選에 합격하고, 7년 정유년(1117)에는 奉恩寺 大選에 합격하여 大德이 주어졌으며, 임인년(1122)과 계묘년(1123)에는 특별한 은사로 大師와 重大師가 더해졌다.

을사년(1125)에 外帝釋院에서 임금을 모시고 불경을 강론하니, 임금의 뜻과 맞았으므로 紫帖袈裟 卍령(1領?)을 하사하였다. 임인년(1122)에는 즉위를 축하하는 법회에 참여하였으며, 그 공으로 여름에도 불경을 강론하였다. 신해년(1131)에는 共議에 따라 처음으로 月岳寺 주지가 되고, 정사년(1137)에는 임금이 글[批]을 내려 三重大師가 되었다. 이 해에 공의에 따라 두 번째로 天興寺 주지로 옮겼다. 무오년(1138)에는 특별히 만든 摩拏袈裟 1령을 임금이 내려주었으며, 皇統 2년 임술년(1142)에는 壽帖袈裟 2령과 옷 한 벌과 아울러 왕실의 차와 향을 내려주었다. 5년 을축년(1145)에는 글[批]를 내려 首座를 더하고 摩拏掩脊 1령을 하사하였다. 6년 병인년(1146)에 공의에 따라 세 번째로 法泉寺 주지로 옮기면서 채색된 비단 바탕에 쓰인 官誥를 하사받았으며, 貞元 2년 갑술년(1154)에는 공의에 따라 네 번째로 修理寺 주지로 옮겨갔다.

무릇 주지로 머물던 곳이 모두 유명한 가람이었는데, 그 승려와 대중들도 스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하였다. 배우려는 사람들이 흠모하며 귀의하니 一宗의 주춧돌이 되었고, 卍卍卍 세 임금이 대우를 받은 것이 이와 같았다. 스님도 이미 나라의 은혜를 후하게 받았으므로 이에 보답하고자 하여 특별히 安城郡에 波羅密寺를 지었다. 절이 완공되어 임금에

게 아뢰니, 임금의 가상하게 여겨서 十六羅漢像을 보내 법당에 모셔두게 하였다. 스님은 이에 寺와 願堂인 忠州 德周寺의 山僧을 소집하여, 祝聖道場을 상설하였다. 주지로 있던 사찰 玄化寺, 安性院, 머무르던 사찰의 법당에서 친히 제자들을 거느리고, 아침저녁으로 향을 사르며 정성껏 법회를 열어 鐘과 磬으로 성대하게 불공을 올리는 것을 감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상적인 행사로 삼으니, 이것은 모두 임금을 축복하기 위한 소원이었다. (이하 후반부 생략, 밑줄 필자)¹¹⁾

수좌는 국사 및 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고려시대 승려 법계의 하나이다. 수좌 지위를 부여받은 것도 그렇지만, 통상 묘지명이나 비문은 주인공이 당시 교단의 고위층 승려임을 입증한다. 특히 비문은 입적한 고승의 문도들이 제출한 행상을 바탕으로 왕명을 받은 관료가 찬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인된 사료이다. 묘지명은 비문에 비해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신뢰할만한 중요한 기록이다. 1158년 관오 묘지명에 바로 ‘덕주사’ 사찰명이 나온다. 내용은 법상종 승려인 관오가 ‘願堂인 충주 덕주사의 山僧을 소집하여, 축성도량을 상설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적어도 12세기 전반 이곳 덕주사가 ‘원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당시 ‘덕주사’의 위상을 밝혀주며, 아울러 덕주사가 법상종 관련 사찰이었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어지는 자료는 1206년에 상덕주사에서 제작한 쇠북이다. 이 쇠북은 일제강점기 말에 하덕주사 경내의 옛 건물지에서 범종 1기, 佛器 여러 점과 함께 발견한 것이다. 이 쇠북 역시 덕주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쇠북은 겉 지름 51cm, 두께 9cm 크기인데, 해서체로 쓰인 다음과 같은 명문이 있다. “泰和 6년 병인년 8월 21일에 상덕주사에서 禁口 1개를 제작했는데, 무게는 13근이다.¹²⁾ 棟梁道人은 戒安 了閑이다. 새 주인 直長

11) 이 글의 각주 2 참조.

12) 지금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7.8kg 가량이다.

宋公侯가 기록하다”¹³⁾ 쇄북이 중요한 이유는 쇄북 명문에 ‘상덕주사’라고 제작지를 밝혀서인데, 이를 통해 적어도 1206년에는 지금처럼 상덕주사와 하덕주사가 각각 존재했음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덕주사’라고만 표기했다. 특히 1757~1765년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덕주사, 관아의 동쪽 50리, 월악산 아래에 있다. 민간에 전하기를 덕주부인이 이 절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다” 했다.¹⁵⁾ 반면, 1861~1866년 김정호가 편찬한 『大東地志』 忠州 山水에는 “동으로 45리 청풍과 경계를 이루는 雄高盤據하며, 상·하덕주사가 있다”¹⁶⁾고 했으며, 『조선고적도보』에도 상·하덕주사에 관한 언급이 있어, 문헌기록 상으로는 19세기에는 명백히 분리해 불렀다. 하지만 앞서 1206년 쇄북 명문에서 ‘상덕주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상, 처음부터 상·하덕주사는 각각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

짐작컨대 월악산의 해발 600m 지점에 거대한 마애불을 새김과 동시에 상덕주사를 창건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찰 접근과 여행객의 편리성을 위해 하덕주사를 조성했을 것이다. 상·하 덕주사간의 얼마간의 시차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상·하 덕주사 모두 한국전쟁으로 소실

13) “泰和六年丙寅八月廿一日, 造上德周寺 禁口一坐, 重拾參斤. 棟梁道人戒安了閑, 新主直長宋公侯記.” 황수영, 「新羅高麗在銘禁口考」 『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동국대학교 출판부, 1960, 372~373쪽;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中世 下篇, 아세아문화사, 1984, 942쪽; 金鼓와 禁口の 용어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최응천, 「韓國禁口形金鼓의 造形과 展開」 『동악미술사학』 13, 2012, 6~32쪽.

14) 발견된 후 강탈당하여 지금은 그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정영호, 「제천 월악산 덕주사지의 조사」 『고고미술』 3-10, 1962, 303~306쪽), 현재 진충신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15) 김우철 역주, 『여지도서 10』 충청도 III, 충원, 디자인 흐름, 2009, 76쪽.

16) 『大東地志』 卷14, 忠淸道 山水條. “月岳山 東四十五里 淸風界雄高盤據 有上下德周寺.”

되었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복원 후 지금에 이른다.¹⁷⁾



NO無 76-2

〈도 4〉 사자빈신사지석탑 인물상, 유리건판 018516

© 『유리원판목록집Ⅲ』, 45쪽, 無76-2)

한편, 하덕주사로 가는 덕주골 입구에는 덕주산성과 북대문이 있다.¹⁸⁾

- 17) 하덕주사에 새롭게 조성한 법당에는 고려시대 약사불과 불좌상을 옮겨 봉안했다. 이 불상은 옛 제원군 한수면 驛里 德尙골의 淨金寺址라고 전해오던 옛 절터에 있던 것인데, 충주댐이 수몰되면서, 1983년 4월 송계 3리 현재의 하덕주사로 이운했다. 각 부분의 크기는 전체 높이 232cm, 머리 높이 65cm, 가슴 폭 50cm, 좌대 크기 73×79cm이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上, 1977, 591쪽 ;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주댐수몰지구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佛蹟分野)』, 3-32, 1984, 59-64쪽.
- 18) 덕주산성은 내성과 외성을 갖추었는데, 덕주골로 들어서서 만나는 첫 번째 성벽이 외성이고, 하덕주사에서 마애불상을 향해 올라가다 도중에 만나는 성벽이 내성이다. 『東國輿地勝覽』에는 이 덕주산성에 관하여 “在州東四十五里, 石築周三萬二千六百七十尺, 內有一泉今廢(충주에서 동쪽으로 45리에 있으며, 주위가 32,670척이고, 성내에 샘이 1개 있다, 지금은 폐기되었다).”라고 적었다. 유사한 내용은 『大東地志』 卷14, 忠淸道 “德周古城, 東南五十里, 月岳山之南,

덕주산성을 언제 축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 초에 폐지되었다고 전한다.¹⁹⁾ 덕주산성에서 남쪽으로, 덕주사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는 보물 제 94호로 지정된 1022년 사사자 빈신사지석탑이 있다(도4). 특히 사사자 빈신사지석탑의 2층 기단에 조성되어 있는 인물상을 덕주사 마애불상 양식과 비교하여 조성 시기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소상히 살펴보겠다.

Ⅲ. 덕주사 마애불상의 현상과 제작 시기

상덕주사에는 현재 보물 제406호로 지정돼 있는 마애불입상이 있다(도5,6). 마애불상이 새겨진 암벽은 월악산 정상인 靈峰과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화강암 재질의 바위 표면을 대충 다듬고, 바위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 부분에 부조로 조각했다. 전체 높이는 13m가 넘으며, 얼굴 높이만도 3.4m에 달하는 거대한 불상이다.²⁰⁾

佛頭는 약간 높은 부조로, 신체는 선각에 가까운 얇은 부조이다(도7). 신체는 소략하지만, 얼굴은 비교적 정교하게 조각했다.²¹⁾ 머리 양쪽 암벽

周三萬二千六百七十尺，泉二溪一。”에도 있다.

1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淸道 忠州牧 古蹟. “州의 동쪽 45리에 있고, 돌로 쌓았으며, 주위가 32,670척이고 성내에 샘이 하나 있다. (덕주산성은) 지금은 폐기되었다.”

20) 덕주사 마애불입상의 세부 크기는 전체 높이 14.1m, 어깨 너비 4.2m, 얼굴 높이 3.4, 얼굴 너비 2.1, 백호공 지름 0.2m, 눈 길이 0.71m(좌), 0.67m(우)이다. 제천시, 『덕주사마애불 실측조사 보고서』, 2003, 18쪽을 참조했다.

21) 덕주사 마애불상의 형식에 관한 언급으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제천군·충주전문대학 박물관, 『덕주사 마애불과 덕주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2, 54~55쪽 ; 진홍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1985, 296~297쪽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上, 1977, 591쪽 ; 김용환·임영애·김형래, 『덕주사마애불 실측

에는 2개 架構孔이, 어깨 양쪽에도 각 2개씩 4개의 사각형의 가구공이 뚫려 있고, 또 암벽 상부에도 4개의 구멍이 있어 조성 당시 목조전실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후 언제 목조 가구가 소실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도 5〉 덕주사 마애불 3D (© 문화재청)



〈도 6〉 덕주사 마애불입상 (© 『조선고적도보』 7, 圖 62)

덕주사 마애불입상의 특징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큼직한 머리 위에는 둥글넓적한 육계가 솟아 있고, 얼굴은 방형에 가깝다. 머리카락을 표현하지 않은 素髮이며, 관자놀이 윗부분의 너비가 얼굴 너비보다 더 넓다. 매우 좁은 이마 한가운데에는 지름이 20cm인 커다란 백호를 새겼는데, 테두리만 깊은 선각으로 새겼다. 정면에서 귀 전체가 보이도록 귀를 세워 조각했는데, 특히 귓바퀴를 달팽이 모양으로 표현했다. 반쯤 뜬 눈은 가로로 길며, 눈동자는 별도로 새기지 않았다. 눈썹 또한 눈 길이만큼 긴데, 눈썹에서 코로 이어지는 선이 ‘낮’ 모양을 이룬다. 얼굴 중앙에 자리 잡은 이등변삼각형의 커다란 코는 얼굴에 비해 큰 편이며, 코 양쪽에 콧방

울을 별도로 조각했다. 인중은 짧으며, 꼭 다문 입의 아래위 입술 선이 선명하다. 턱은 긴데, 원래부터 암벽 면에 있던 바위의 갈라진 틈을 잘 활용해, 턱을 이중으로 표현했다. 굴곡 없이 표현한 신체는 얼굴에 비해 얇은 선각으로 새겼다. 신체 위에는 通肩 형식의 가사를 걸쳤다. 신체에 비해 커다란 양손은 가슴까지 올렸는데,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댔으며, 왼손 역시 손등을 보이게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댔다.



〈도 7〉 덕주사 마애불 3D (© 문화재청) 〈도 8〉 소래산 마애불 (© 서진문화유산)

가사는 배 부근에서부터 ‘U’자를 그리며 내려오다가, 양 허벅지 위에서 3·4개의 타원형으로 동심원을 그린다(도7). 허벅지 위에 선각한 동심타원형 옷 주름은 허벅지가 강조되어 두드러져 보이는데, 유사한 옷 주름 형식은 함안 대산리 석조보살입상,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불입상 등 고려시대 석불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1022년 사자빈신사지 석탑의 인물상은 좌상인데다 성격도 다르지만, 양 무릎 위에 덕주사 마애불입상과 같은 모양의 동심 타원형이 있어 흥미롭다(도4). 사자빈신사지 석탑의 인물상은 제작 연대도 분명하지만, 덕주사 마애불입상과 인접해 있어 덕주사상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다.

덕주사 마애불입상과 유사한 양식의 마애불은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과 최근 알려진 고성 거류산의 마애불좌상이 있다. 우선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은 소래산 중턱의 병풍바위라 불리는 암벽에 높이 14m의 거대한 마애보살상을 알게 선각했다(도8).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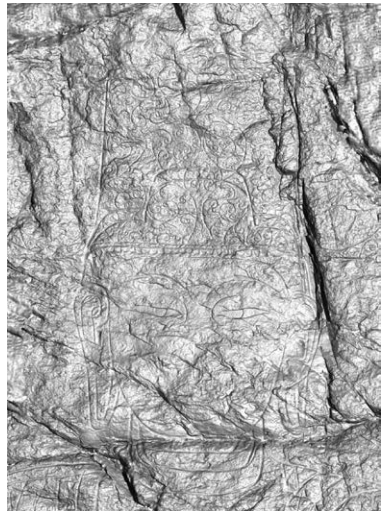
소래산 역시 월악산과 마찬가지로 이 일대의 鎭山이었다.²³⁾ 이 보살상은 바위 위에 깊이 5mm로 얇게 선각한데다가, 마모가 있어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치 한 폭의 회화처럼 보인다. 보살상은 꽃무늬로 장식한 높은 원통 모양 보관을 썼으며, 관의 양옆으로 冠帶가 있다. 원통형 높은 관을 쓴 모습이나 이목구비를 큼직하게 표현한 것은 고려 전기 석불 조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흥미롭게도 보살상의 보관 아래로 불상의 육계가 보인다. 불상을 새기려다가 보관을 추가하여 보살상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도9,10).

22) 전체 높이 약 12.3m, 머리 높이 3.27m, 보관 높이 1.42m, 어깨 너비 약 3.7m, 연꽃 좌대 너비 약 4.75m.

23) 『東國輿地勝覽』 卷9, 仁川都護府 山川 참조.



〈도 9〉 소래산 마애불 상반신
(© 서진문화유산)



〈도 10〉 소래산 마애불 얼굴 3D사진
(© 서진문화유산)



〈도 11〉 고성 거류산 마애불
(© 오세윤)



〈도 12〉 고성 거류산 마애불
(© 오세윤)



〈도 13〉 덕주사 마애불과 고성 거류산 마애불 얼굴 (© 임영애 편집)

덕주사 마애불입상,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고성 거류산 마애약사불좌상은 첫째, 둥글넓직한 얼굴에 과장된 이목구비, 짧은 목, 그리고 선명한 목의 삼도, 둘째, 머리는 부조로, 몸은 선각으로 표현한 점 등이 특징인데, 이는 고려시대 전기 마애불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덕주사 마애불은 입상이며, 고성 마애약사불은 좌상이라는 점, 크기가 다르고, 손 모양이 다른 점 등 몇 가지 차이를 제외하고는 유사하다. 특히 머리는 부조, 몸은 선각으로 제작한 점, 둥글넓직한 얼굴에 긴 눈과 눈썹, 짧은 인중, 커다란 입 등 과장된 이목구비, 그리고 독특한 콧바퀴 표현 등에서 매우 흡사한데, 이들 마애불은 모두 고려 전기의 중앙양식과는 차이가 있는 지역 특색을 지닌 작품이다. 또 신체표현에서 간략한 조각선, 입체감 없이 평편한 신체, 형식화·도식화된 옷 주름, 비례가 맞지 않는 신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덕주사 마애불상과 같이 크기가 10m가 넘는 거대한 석불은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 후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전기까지 유행했다. 이를테면 고려 광종(재위 950~975)대 慧明스님이 제작한 관축사 석조보살입상(968년) 역

시 높이 18.12m의 거불이며, 덕주사와 거리도 멀지 않다(도14).²⁴⁾ 이를 비롯하여 같은 충청도 지역의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또 덕주사 마애불상과 함께 조성했다고 전하는 충주 미륵대원 석불입상 등이 같은 계열의 조각이다. 다만 덕주사 마애불상이 좀 더 풍만하고, 옷 주름에서 차이가 있다.



〈도 14〉 관촉사 석조보살입상과 덕주사 마애불 얼굴 (© 임영애 편집)

덕주사 마애불상은 고려 전기에 유행했던 거불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 거불은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는데, 가깝게는 관촉사 미륵보살입상, 미륵대원 석조불입상, 멀리는 인천 소래산 마애불입상, 고성 거류산 마애약사불좌상과도 같은 계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형 얼굴에 큰

24)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기 바란다. 최선주, 「고려초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연구」 『미술사연구』 14, 2000, 3-33쪽; 신은영,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의 圖像-尊名불일치 문제와 ‘世間」 『史學研究』 117, 2015, 123~161쪽.

코, 굴곡없는 신체, 큰 손과 발, 겹 타원형의 옷 주름선은 인근 1022년 사자빈신사지 조사상과도 특징이 같다. 덕주사 마애불상의 제작 시기를 사자빈신사지 조사상과 비슷한 11세기 전·중반 무렵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²⁵⁾

IV. 월악산, 法相宗, 미륵불, 그리고 뒤의 역사

덕주사 마애불입상은 월악산의 해발 600m 지점에 조성한 불입상이다. 불상이 월악산의 정상은 아니지만, 주변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해 조성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산과 불상의 관계가 밀접하다. 대구 팔공산 관봉 정상에도 관봉석불좌상이 있고, 경주 선도산 마애불, 경주 남산의 상선암, 용장곡 등지의 석불좌상이나 월출산 구정봉 등 산 정상 가까이에 마애불을 조성했다. 우리나라 불교미술에서 ‘산’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불상을 산 정상에 조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에게 ‘산’은 언제나 신성한 성지였다.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는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존재’로 늘 이를 숭배하고 신성시해왔다. 신라 오악 가운데 중악에 해당하는 팔공산에서도 천제를 지냈음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을 통해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²⁶⁾ 『동국여지승

25) 덕주사 마애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한다. “이 상은 대불이면서 그 형상이 정교하지 못한 형태이다. 비록 기법이 능숙치 못하고 비례미 역시 정밀하게 갖추지 못하였으나, 신령스러운 바위 부처로서의 영험함이 하얀 바위에 드러나 있어 보인다. 다만 전설상의 10세기 초반 덕주공주의 마애불이 아니라, 보다 시대가 내려오는 고려 중기의 상으로 보인다.” 이경화, 「한국 마애불의 조형과 신앙 : 고려·조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52~53쪽.

26) 『三國史記』 卷32, 雜誌 第1, 祭祀 新羅. ‘신라시대 오악 가운데 중악으로 국가

람』에 “月岳山 군 남쪽 50리에 있다. 신라에서는 月兄山이라고 일컬었다. 小祀로 되었다.”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월악산 역시 신라 때 소사가 될 만큼 일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산이었다.²⁷⁾

고려시대에도 산에 대한 신앙은 끊이지 않았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는 태조가 산천의 陰佑로 나라를 일으켰다는 믿음에 따라 천제지변이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오악명산에 가호를 빌었다.²⁸⁾ 산악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역공동체나 국가를 보호해준다는 관념을 기본으로 산악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불교에서 산은 특별하다. 불교의 수미산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⁹⁾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부터 명산으로 알려진 월악산에 각종 불교미술을 조성한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이곳 월악산에만 십여 곳의 폐사지가 알려져 있으며, 월악산은 제천, 충주, 문경 일대의 중요한 불교 성지 가운데 하나였다.³⁰⁾

이처럼 불교미술에서 산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특히 산지가 70% 이상인 산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산’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고대 국가에서 전통의 산악 개념과 불교의 산 개념은 매우 유사하다. 덕주산 역시 예부터 靈山으로 알려져 전통적인 산악숭배 사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산골짜기마다 많은 사찰과 암자가 있던 불교유적지이며, 군사요충지로 산성을 쌓아 외적을 막던 요새였다. 덕주사 마애불입상은 덕주골에서 月岳 靈峰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자리 잡아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에 있었다.

에서 中祀로서 제사를 지내던 산이다.’

2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淸道 淸風郡.

28) 『高麗史』 卷42, 世家42, 太祖 26年(943) 4月.

29) 定方晟, 『須彌山と極樂』, 東京: 講談社, 1979, 16~17쪽; 春日井眞英, 「須彌山の構造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29-1, 1980, 130~131쪽; 小南一郎, 「壺形の宇宙」 『東方學報』 61, 1989, 165~221쪽.

30) 제천군·충주전문대학 박물관, 앞의 책, 1992, 25~38쪽.

이곳과 연결되는 고갯길은 죽령과 계립령인데, 죽령 平丘道는 개경-충주-죽령-강주-안동-경주를 연결한다.³¹⁾ 계립령은 충주, 예천, 안동을 잇는 최단거리 고개였다.³²⁾ 덕주사가 위치한 이곳은 남쪽으로 경상도와 통하고, 북으로는 남한강을 따라 충주로 통하는 중요 교통로 위에 있다. 월악 영봉은 해발 1093m 우뚝 솟은 월악산의 주봉이며, 이곳을 월악산으로 부르게 된 것도 바로 이 월악 영봉 때문이다. 멀리 소백산 비로봉과 마주하며, 이 봉에 오르면 충주, 제천, 단양 등지가 내려다보인다.

이곳 제천은 동쪽으로는 충북 단양, 서쪽은 충북 충주, 남쪽은 경북 문경, 북쪽은 강원과 원주시, 영월군과 경계하고 있다. 지형학적으로 충북, 강원도, 경상북도 등 3개 도와 5개 시 군을 연결하며, 남한강 수계에 위치하여 수로 또한 발달했다. 이중환(1690~1752)은 『택리지』에서 이곳의 지리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충주는 읍이 한강 상류에 있어 물길로 왕래하기가 편리하여, 예부터 서울 사대부들이 여기에 살 곳을 많이 정하였다. 달천에서 물을 거슬러 남쪽으로 가면 괴강에 이르고, 다시 동쪽으로 거슬러 가면 청풍에 이르는데, 사대부의 정각이 많고, 의관 차린 사람이 모여, **배와 수레가 모여든다.** 또 國都의 동남방에 위치하여, 한 고을에서 과거에 오른 사람이 많기로는 팔도 여러 고을 중 첫째여서 이름난 도회라 부르기에 족하다. 그러나 경상도에서 서울 가는 길이, 좌도에서는 죽령을 지나 이 읍에 통하고, 우도에서는 鳥嶺을 지나 이 읍과 통한다. **두 고개의 길이 모두 이 읍에 모여, 물길 또는 육로로 한양과 통한다. 읍이 경기도와 영남과**

31) 죽령은 충주와 인접한 嶺路인 鷄立嶺에 비해 해발고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어 후삼국시기에는 후백제의 견제를 받지 않고 개경과 경주를 직접 연결한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정요근, 「高麗前期 驛制의 整備와 22 驛道」 『韓國史論』 45, 2001, 34쪽.

32) 계립령은 충주에서 서남쪽으로 상주 방면으로 향하는 영로인 계립령은 죽령에 비해 해발고도가 낮고 평탄했으며, 한강과 낙동강의 수운을 연결하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을 지녔다. 정요근, 위의 논문, 2001, 35쪽.

왕래하는 길의 요충에 해당하므로 유사시에는 반드시 서로 점령하려는 곳이 될 것이다. 실제로 온 나라의 한복판으로 중국의 荊州, 豫州와 같다.”³³⁾ (말줄 강조 필자)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제천은 경상북도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고대 교통로의 중심지였다. 이 일대를 포함한 남한강 수계는 사람과 물산이 번영했으며, 월악산 인근의 미륵대원지, 사자빈신사지, 덕주사, 덕주산성, 동창지, 신흥사지, 월광사지가 이를 입증한다.³⁴⁾ 이런 이유로 덕주사는 창건 이후 규모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마애불이 있는 상덕주사에 이어 하덕주사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됐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예부터 육로와 수로 연결되는 고대 교통로 가운데 한 곳이라는 점도 덕주사 마애불입상의 형식 및 양식이 여러 지역으로 전해지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편, 덕주사 마애불이 제작되던 시기, 덕주사는 법상종 사찰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觀輿(1096~1158)의 1158년 「증지수좌관요묘지명」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³⁵⁾ 물론 이 묘지명에 덕주사가 법상종 사찰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대표적인 법상종 승려였던 관오가 ‘원당 덕주사’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덕주사는 처음부터 법상종 사찰로 창건되었으며, 덕주사에 조성한 마애불입상 역시 법상종 주불인 미륵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관오는 고려 전기에 매우 위상이 높은 승려였다. 그는 崔士威(961~1041)의 玄孫이며 崔繼芳(1045~1116)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잘 알려진

33) 이중환 지음, 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5, 105쪽.

34) 「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보물 제306호)가 세워졌던 月光寺 역시 이 일대의 대표 사찰 가운데 하나였으나, 애석하게도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35) 고려 전기의 8점 금석문을 통해 법상종의 실체를 파악하려 한 논고도 있다. 남동신, 「고려 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佛敎研究』 30, 2009, 153~189쪽.

대로 최사위는 현종의 응립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현종대의 재상이자 국왕의 최측근이었다. 관오는 1107년, 12세에 법상종 사찰인 현화사의 僧統 尙之(?~?)에게 출가하였다. 상지는 최계방의 첫째 동생으로, 관오에게는 숙부이다.³⁶⁾ 관오는 1113년, 18세에 崇敎寺 成福選에 합격하였다. 법상종 계열 사찰인 승교사는 穆宗(재위 997~1009)의 願刹이자, 고려 제8대 玄宗(재위 1009~1031)이 이곳에서 출가하여 승려 생활을 했던 곳이다. 4년 뒤인 1117년, 22세에는 奉恩寺 大選에 합격하여 大德이 되었고, 승계가 首座까지 올랐다. 또 共議에 따라 月岳寺, 天興寺(천안), 法泉寺(원주), 修理寺 주지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그는 법상종을 이끌었고, 예종·인종·의종 세 임금의 우대를 받았다. 관오는 1158년 5월 21일에 나이 63세, 승랍 52세로 입적하였다.

1131년, 관오는 36세에 첫 주지 소임을 맡았다. 그곳이 바로 월악산 월악사이다. 덕주사의 이전 이름이 월악사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³⁷⁾ 왜냐하면, 관오의 묘지명에도 월악사와 덕주사 사명이 동시에 나오며,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에 ‘덕주사’와 ‘월악사’의 이름이 각각 등장하기 때문이다.³⁸⁾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주목에는 ‘(덕주사는) 월악산 아래에 있으며 ...’라고 적었고, 청풍군에는 ‘月岳寺, 月岳山에 있다.’고 각각 기록하고 있어 명백히 다른 사찰임을 알려준다. 또 權尙夏(1641~1721)의 『寒水齋集』에도 덕주사, 월악사 이름이 별도로 나온

36) 瑜伽宗으로 출가한 慶源 李氏 詔顯의 스승 海麟과 제자 窺은 모두 근친이었다. 유가종으로 대를 이어 출가한 이들로는 水州 崔氏의 尙之와 觀輿, 청주 김씨의 英念-順眞-德謙이 있는데 이들은 숙부와 조카이면서 사제관계를 유지하였다. 박윤진, 「고려시대 승려의 혈족간 사승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42, 2008, 1~35쪽.

37) 제천군·충주전문대학 박물관, 앞의 책, 1992, 78쪽.

38)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 고전국역총서 41, 1969, 434쪽; 『東國輿地勝覽』 卷之十四 忠淸道 忠州牧 佛宇條, ‘在月岳山下 謔傳德周夫人 建此寺 因名之’;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淸道 淸風郡.

다.³⁹⁾ 이 두 사찰이 월악산에 있던 각각 다른 사찰임이 분명하지만, 현재 월악사는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었던 사찰인지는 알 수 없다.⁴⁰⁾

다만, 묘지명에 ‘**관오가 무릇 주지로 머물던 곳이 모두 유명한 가람이었는데, 그 승려와 대중들도 스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하였다. 배우려는 사람들이 흠모하며 귀의하니 一宗의 주춧돌이 되었고, 卍卍卍 세 임금의 대우를 받은 것이 이와 같았다.**’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1131년 월악사가 꽤 이름이 알려진 사찰이었음에 틀림없다.

한편, 관오는 임금의 대우를 후하게 받은 일에 보답하고자 ‘스님은 이에 卍卍사(卍卍寺)와 **원당인 충주 덕주사의 산승을 소집하여, 축성도량을 상실했다.**’고 기록했다.⁴¹⁾ 또 궁핍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베풀었는데, 龍山院 指南大路에서 施與場을 크게 열어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음식물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전한다. 이때 주목할 대목은 바로 덕주사가 ‘願堂’이었다는 점이며, 안성군 波羅密寺에 임금을 축복하기 위한 축성도량을 두었는데, 이때 소집된 승려가 바로 충주 덕주사의 승려들이었다는 점이다.⁴²⁾ 특히 이 시기 덕주사가 ‘원당’이었다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12세기 전반 마애불입상이 있던 덕주사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⁴³⁾

이와 관련하여 덕주사와 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1022년 사자빈신사지 석탑의 건립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석탑의 1층 기단 남쪽

39) 권상하, 국역 『寒水齋集』 권1, 한국민족문화추진회, 1991, 51,76쪽 및 권5, 18쪽.

40) 1757~1765년 편찬한 『여지도서』에서는 월악사 명칭을 찾을 수 없다.

41) 김용선 편저, 앞의 책, 1993, 165~167쪽.

42) 아쉽게도 안성 波羅密寺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사찰이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43) 고려시대 원당 관련 연구 성과는 다음의 글이 유용하다. 한기문, 「고려시대 왕실원당과 그 기능」 『국사관논총』 71, 1996, 37~68쪽 ; 한기문, 「고려시대 관인의 원당」 상·하, 『대구사학』 39·40, 1990, 61~93, 1~34쪽.

면석에 새겨진 조탑연기문은 ‘1022년, 永消怨敵, 즉 적의 소멸을 기원하여 탑을 세웠다’는 탑의 건립 시기와 목적을 알려준다. 사자빈신사는 적어도 고려 전기, 이 지역 대표 호국도량이었다. 앞서 관오 역시 덕주사의 산승을 소집하여 왕을 위한 축성도량을 상설했다고 한 것을 보면, 월악산 일대의 사자빈신사지와 덕주사는 고려 전기 이 일대의 호국사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자빈신사지 석탑과 거리도 가깝지만, 옷 주름의 형식도 유사하여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권역의 사찰로 볼 수 있다.

또한, 덕주사 마애불입상은 미륵불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법상종 승려인 관오와 덕주사의 관련을 생각하면, 덕주사는 법상종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잘 알려진 것처럼 법상종은 미륵을 주불로 모셨다. 특히 법상종 승려인 韶顯(1038~1096)이 임종하면서 ‘미륵여래’의 명호를 불렀다거나,⁴⁴⁾ 德謙(1083~1150)의 묘지명에도 임종하면서 ‘當來彌勒尊佛’을 염했다는 사실을 이를 입증한다.⁴⁵⁾ 이는 임종 시에 미륵보살이 아니라 미륵불을 염불하는 미륵하생신앙의 전통이 고려 법상종에 있었음을 알려준다.⁴⁶⁾ 법상종의 주요 지방 거점 사찰인 법주사, 동화사, 금산사에 현존하는 불상 역시 미륵하생신앙과 관련있으며,⁴⁷⁾ 고려 전기 충청, 호남 일대의 대형 불상이 대부분 ‘미륵’을 염두에 두고 조성했던 점을 상기해도 덕주사 마애불입상은 ‘미륵불’로 조성했을 것이다.

한편, 흥미롭게도 願堂 혹은 院館 사찰 인근에 대형 석불이 존재한

44) 1111년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http://gsm.nricp.go.kr/_third/user/frame.jsp?View=search&No=4&ksmno=3180(11월 21일 검색 결과).

45) 1150년 「圓證僧統德謙墓誌銘」

http://gsm.nricp.go.kr/_third/user/frame.jsp?View=search&No=4&ksmno=3236(11월 21일 검색 결과).

46) 남동신, 앞의 논문, 2009, 163쪽.

47) 남동신, 위의 논문, 2009, 163쪽.

다.⁴⁸⁾ ‘포천미륵원과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미륵대원과 미륵대원 석불입상’이 대표적이다. 특히 포천미륵원은 관오의 高祖인 최사위가 발의 하여 창건한 사찰이며, 포천미륵원의 창건과 동시에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970~1006)을 조성했다.⁴⁹⁾ 그리고 보면 덕주사마애불입상의 조성과 함께 덕주사가 창건되었고, 이후 관오가 이곳을 자신의 원당으로 삼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특히 덕주사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여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을 테고, 그런 이유로 하덕주사가 확장 창건되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기록이지만, 많은 사대부들의 시문집에도 덕주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이곳이 유람 중에 머물기 적당한 장소였음을 알려준다.⁵⁰⁾ 필자는 11세기 중엽이후 12세기까지 여러 지역에서 원관 사찰이 건립되던 무렵 덕주사 마애불입상과 함께 덕주사가 창건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곳 덕주사에서 조선시대 발간한 간본도 적지 않다.⁵¹⁾ 1540년에 덕주사에서 개관한 講文을 비롯하여, 숙종때 대제학을 지낸 서하 李敏敍(1633~1688)의 문집인 『西河先生集』에 이르기까지 이곳 덕주사에서 개관한 사찰본의 종류가 모두 7종으로 충북지역 사찰 가운데 그 숫자가 가장 많다. 덕주사에서 개관한 사찰본의 종류가 일대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덕주사가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문인들도 꾸준히 덕주사를 왕래하며, 그들의 문집에서 덕주사를 언급했다.⁵²⁾ 남아있는 기록을

48) 고려시대 원관 사찰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이 좋은 참고가 된다. 최연식, 「고려시대 院館 사찰의 출현과 변천과정」 『이화사학연구』 52, 2016, 1-34쪽.

49) 「崔士威墓誌銘」 『한국금석문집성』 28, 한국국학연구원, 2003, 29~30쪽.

50) 이 글의 각주 52 참조.

51) 김영진, 「忠北地域의 古印刷 : 板本을 中心으로」 『博物館報』 4, 1990, 31~33쪽.

52) ① 盧守愼(1515~1590) 『穌齋集』, ② 權認(1604~1672) 『炭翁集』, ③ 權尙夏

통해 16~18세기 사대부들이 적잖이 덕주사를 다녀갔음을 알 수 있지만, 유람기가 아닌 시의 형태로 남아있어 덕주사나 덕주사 마애불과 관련한 보다 소상한 내용을 알아내기는 어렵다. 18세기 후반까지 충주 일대의 사대부들이 즐겨 오르내리던 덕주사였지만, 1794년 4월 5일, 이곳 덕주사에 큰불이 났다. 관련 내용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전한다. 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충청 감사李亨元이 보고하기를, ‘충주의 덕주사에 우연히 불이 나서 **사찰 90여 칸과 佛像, 什物, 호조에 납부할 白綿紙를 떠내기 위해 1270냥에 사 온 닻나무 껍질이 일시에 모두 타 버렸으니, 30명 승려의 여러 가지 부담해야 할 부역을 영구히 감해 주어야겠으며, 불에 타 버린 닻나무 껍질은 貢人에게서 나온 물건이니 변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義僧의 防番錢으로 말하면, 防番穀의 耗條 중 수백 섬의 잉여가 있으니, 충주의 의승 7명이 납부해야 할 방번전 63냥은, 저 잉여 곡물을 가져다가 이 방번전을 보충하게 한다면, 실로 둘 다 편리한 정사에 합당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찰이 복구될 때까지 이대로 시행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100칸 가까운 사찰이 일시에 다 타 버려 수많은 승려들이 살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니, 참으로 매우 측은합니다. 불쌍히 여겨 구휼하는 방도로 불 때 부역을 경감해 주는 조치가 있어야 하니, 의승의 방번전은 보고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불에 탄 닻나무 껍질에 대한 일로 말하면, 공인이 사사로이 무역한 것이니 번거롭게 청하여 변통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도내의 큰 사찰이라고 하니, 해당 읍을 엄히 신척하고, 또한 도백이 힘을 합쳐 기어코 다시 수리하게 하라. 닻나무 껍질도 공연히 징수할 수 없으니 이것도 도백에게 물어 이치를 따져 보고하게 하고 보**

(1641~1721) 『寒水齋集』, ④ 吳道一(1645~1703) 『西坡集』, ⑤ 金昌協(1651~1708) 『農巖集』, ⑥ 李健命(1663~1722) 『寒圃齋集』, ⑦ 尹鳳九(1683~1767) 『屏溪集』, ⑧ 李胤永(1714~1759) 『丹陵遺稿』, ⑨ 金得臣(1754~1822) 『柏谷集』 ①-⑨까지의 시문집은 한국역사정보종합시스템을 활용해 검색했음을 밝혀둔다.

고가 올라온 뒤에 좋은 쪽으로 결정해서 지급하여, 白微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⁵³⁾

위의 내용의 덕주사가 상덕주사인지, 하덕주사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사찰 90여 칸과 불상”이 소실됐다는 내용으로 미뤄 보면 하덕주사일 가능성이 크다. 복구한 후에도 한국전쟁 때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세를 이어오고 있다(도7).⁵⁴⁾

V. 맺음말

고려시대 마애불은 전국적으로 대략 100여기가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마애불 200여기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최근에도 고려 전기 마애불이 남쪽 끝자락 경남 고성 거류산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후에도 꾸준히 그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 마애불 가운데 명문이나 관련 기록이 있어 정확한 제작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예는 극히 적다. 이곳 제천 덕주사 마애불입상도 고려 전기 크게 유행했던 대형 마애불 가운데 하나이지만, 명문이나 관련 문헌 자료가 없어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다.

덕주사 마애불입상은 얼굴은 낮은 부조로, 옷 주름은 선각에 가깝게 새졌다. 넓직한 얼굴에, 눈은 가로로 길게, 코와 입은 크게 조각했다. 콧방울을 강조했으며, 이중턱에 콧바퀴를 달팽이 모양으로 새졌다. 흥미롭게도 이는 최근 발견한 고성 거류산 마애약사불좌상과 같은 양식이다. 이러한

53) 『承政院日記』 正祖18年, 1794年 4月 5日 ; 『日省錄』 正祖18年 甲寅 1794年 4月 5日.

54) 『每日申報』 1914년 5월 9일 “法堂佛像이 俱沒, 강도가 절에 불을 놓았어, 법당과 부처가 모두 탔어.”

양식의 시작은 1006년 완성한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에서 비롯하여, 이후 이곳 덕주사 마애불입상, 인천 소래산 마애불, 고성 거류산 마애불 등으로 이어진다. 덕주사와 거류산 마애불은 양식을 고려하면, 11세기 전-중반 무렵 조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덕주사 마애불입상의 얼굴 모습은 이전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미감이다. 이를 흔히 ‘토속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불상의 크기가 크다는 점과 함께 주로 중부지역의 특징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고성 거류산에서 동일한 양식의 마애불이 알려지면서, 지역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유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덕주사 마애불이 위치한 월악산 인근은 영남에서 각 지역으로 이르는 길목에 있는데다가, 남한강 수로의 출발지였다. 육로로도, 수로로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동인구도 많고, 물자도 모이는 교통 군사요충지였다. 덕주사 마애불입상과 유사한 양식의 마애불을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한편, 1158년 작성한 관오의 묘지명을 통해 덕주사가 12세기 전반에는 법상종 사찰이며, 원당 사찰이었음도 알게 됐다. 관오는 그의 묘지명이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중있는 승려였음을 알려준다. 묘지명에는 그가 최사위의 현손이며, 숙부인 상지에게 출가했다고 전한다. 상지는 고려 최고의 법상종 사찰인 현화사의 승통이었다. 관오 역시 법상종 대표 사찰 가운데 하나인 법천사 주지를 지냈기 때문에, 그를 법상종 승려라고 봐도 좋다. 그런 그가 당시 덕주사가 원당이라고 밝혔다는 점, 그리고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인연있는 덕주사의 산승을 불러 왕을 위한 축성도량을 열었다는 점에서 당시 덕주사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관오가 고려 전기 법상종 승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덕주사 역시 법상종 사찰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덕주사 마애불의 존명은 이 시기 법상종 승려와 미륵불의 관계, 13m에 이르는 덕주사 마애불의 크기로 미뤄 볼 때 미륵불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마애불은 암벽 형태와 바위 결을 최대한 살려가며 조각했다. 바위의 원형을 최대한 존중하여 불좌상을 새길 것인지, 불입상을 새길 것 인지를 선택했다. 덕주사 마애불 역시 이 일대의 영산인 월악산의 해발 600m 지점의 거대한 바위 면을 골라, 그곳에 맞게 미륵불입상을 새겼다. 이곳 덕주사는 고려 전기 원당 사찰 가운데 하나였고, 덕주사 승려들은 왕을 위한 축성도량에 참여하기도 했다. 덕주사는 교통이 사방으로 열린 월악산에 거대한 마애불을 새기고, 나라의 안녕을 빌었던 고려 전기 호국 도량 가운데 하나였다.

【참고 문헌】

1. 자료

- 權尙夏(1641~1721) 『寒水齋集』
 權認(1604~1672) 『炭翁集』
 金得臣(1754~1822) 『柏谷集』
 金昌協(1651~1708) 『農巖集』
 盧守愼(1515~1590) 『穌齋集』
 吳道一(1645~1703) 『西坡集』
 尹鳳九(1683~1767) 『屏溪集』
 李健命(1663~1722) 『寒圃齋集』
 李胤永(1714~1759) 『丹陵遺稿』
 『高麗史』 卷五十六 志
 『大東地志』 卷第14 忠清道
 『東國輿地勝覽』
 『每日申報』 1914년 5월 9일
 『三國史記』 卷32 雜誌 第1 祭祀 新羅.
 『承政院日記』 正祖18年, 1794年 4月 5日
 『日省錄』 正祖18年 甲寅 1794年 4月 5日.

2. 저서

- 권상하, 국역 『寒水齋集』 권1, 한국민족문화추진회, 1991.
 金龍善,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김용선 편저,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0,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3.
 김우철 역주, 『여지도서 10』 충청도 III, 충원, 디자인 흐름, 2009.
 柳亨烈 편저, 『淸風府邑誌史料集成』 3, 奈堤文化硏究會, 2015.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上, 591, 1977.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 고전국역총서 41, 1969.
 이중환 지음, 『택리지』, 이익성 옮김, 을유문화사, 2005.
 장준식 외 5인, 『提川 德周寺 極樂殿址 發掘調査 報告書』, 學術硏究叢書 18, 충청대학 박물관, 2006.

- 제천군·충주전문대학 박물관, 『덕주사 마애불과 덕주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2.
 堤川郡誌編纂委員會 編著, 『堤川郡誌』 名勝古蹟條, 堤川郡, 1974.
 제천시, 『덕주사마애불 실측조사 보고서』, 2003.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주댐수몰지구문화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佛蹟분야)』, 3-32, 1984.
 忠北北道 문화공보담당관실, 『傳說誌』, 1982.
 한국국학연구원, 『한국금석문집성』 28, 한국국학연구원, 2003.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中世 下篇, 아세아문화사, 1984.
 定方晟, 『須彌山と極樂』, 東京: 講談社, 1979.

3. 논문

- 김영진, 「忠北地域의 古印刷 : 板本을 中心으로」 『博物館報』 4, 1990.
 김용환·임영애·김형래, 「덕주사마애불 실측조사연구」 『박물관지』 12,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3.
 남동신, 「고려 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佛敎研究』 30, 2009.
 박운진, 「고려시대 승려의 혈족간 사승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42, 2008.
 신은영, 「관측사 석조보살입상의 圖像-尊名불일치 문제와 ‘世間」 『史學研究』 117, 2015.
 이경화, 「한국 마애불의 조형과 신앙 : 고려·조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정영호, 「제천 월악산 덕주사지의 조사」 『고고미술』 3-10, 1962.
 정요근, 「高麗前期 驛制의 整備와 22驛道」 『韓國史論』 45, 2001.
 최선주, 「고려초기 관측사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연구」 『미술사연구』 14, 2000.
 최연식, 「고려시대 院館 사찰의 출현과 변천과정」 『이화사학연구』 52, 2016.
 최우천, 「韓國禁口形金鼓의 造形과 展開」 『동악미술사학』 13, 2012.
 한기문, 「고려시대 관인의 원당」 상·하, 『대구사학』 39-40, 1990.
 한기문, 「고려시대 왕실원당과 그 기능」 『국사관논총』 71, 1996.
 황수영, 「新羅高麗在銘禁口考」 『黃義敦先生古稀記念 史學論叢』, 동국대학교 출판부, 1960.
 小南一郎, 「壺形の宇宙」 『東方學報』 61, 1989.
 春日井眞英, 「須彌山の構造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29-1, 1980.

4. 기타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

Abstract

The Rock-carved Standing Buddha Statue at the Memorial Temple(願堂), Deokjusa Temple in Jecheon

Lim, Young-ae

About 100 rock-carved Buddha statues of Goryeo era are known nationwide. This is about half of 200 rock-carved Buddha statues in Korea. However, there are very few examples of Goryeo era rock-carved Buddha statues that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exact time of production due to the inscription or related records. The rock-carved standing Buddha statue at Deokjusa temple in Jecheon is one of the large rock-carved Buddha statues that were very popular in the early Goryeo era, but the exact time of production is also unknown. The rock-carved Buddha statue at Deokjusa temple was considered to have been created in the first half of the 11th century, considering its style. The face of the rock-carved standing Buddha statue at Deokjusa temple is a new aesthetic not found in previous periods. This figure is known as a feature of the central region, mainly Chungcheong, along with the large sized Buddha statue, but recently, the same style of rock-carved Buddha statues are known at Mt. Georyu, Goseong, Gyeongnam, confirming that they were popular nationwide. In particular, the region around Mt. Worak where the Deokjusa temple rock-carved Buddha statue is located is on the way from Yeongnam to various regions, and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Namhan River channel.

This is why the rock-carved Buddha statue, which is similar in style to the Deokjusa temple rock-carved standing Buddha statue, can be found all over the country.

The grave name of Gwanoh (觀輿, 1096~1158), written in 1158, also revealed that the Deokjusa temple was one of the Fa-xiang (法相) temples, and the Memorial Temple as well in the first half of the 12th century. Just the fact that there is his grave name written tells us that Gwanoh was an important monk in the central Order. Gwanoh was a Fa-xiang School monk. The monk sanctuary he was in was Seungdong of Hyeonhwasa temple which is Koryo's best Fa-xiang temple, and This is confirmed by the fact that Gwanoh himself was the head of Beopcheonsa temple, one of the representative temples of Fa-xiang. In that sense that he said Deokjusa temple was a Memorial Temple (願堂), and in that the monks of the Deokjusa temple were called to open fortification Doryang for the king, it is possible to presume the status of the Deokjusa temple at that time. It is very likely that the Deokjusa temple was also one of Fa-xiang temples, 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name of the Deokjusa temple rock-carved Buddha statue at this time is the Maitreya in the light of gu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xiang monks and the Maitreya and the size of the Deokjusa temple rock-carved Buddha statue reaching 13m. Deokjusa temple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nation-defending Doryang in the early Goryeo era who carved a giant rock-carved Buddha statue at Mt. Worak where traffic is open everywhere and wished the country tranquility.

Key Words : 'Deokjusa Temple, Woraksa Temple, Mt. Worak, Mt. Georyu of Goseong, Rock-carved Buddha Statue, Gwanoh(觀奧, 1096~1158), Memorial Temple (願堂), Maitreya, Fa-xiang School(法相宗)

논문 투고일 : 2019. 10. 25

심사 완료일 : 2019. 11. 15

게재 확정일 : 2019. 12. 02